



고된 농사일을 흥과 신명으로 풀어난 풍장굿.

# '풍년을 바라는 마음 담아'

고창농악보존회 '인문학 콘서트-풍장굿' 23일 전수관 대극장서

풍년을 바라는 마음을 풍장소리에 담아 고된 농사일을 흥과 신명으로 풀어난 풍장굿의 이야기가 오는 23일 오후 8시 고창농악전수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민두레 풍장굿 또는 '두레 풍장'이라고도 불리는 '풍장굿'은 마을 공동체가 풍년을 기원하며 논매기 때 치는 곳으로, 김을 다 메면 상머슴은 소를 타고, 주인은 지게를 타고 풍년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와 주인집에서 고된 일을 하느라 애쓴 일꾼들에게 술과 음식을 내놓고, 저녁 내내 한바탕 굿을 치고 놀며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것이다.  
고창농악보존회는 2000년 신립면 세곡마을에서

30여년 만에 처음 풍장굿을 재현하였으며 2001년, 2009년, 2015년 고창농악 문화제 발표회를 통해 현장에서의 굿을 꾸준히 전승하고 있다.  
이번 인문학 콘서트에서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이자 민속학자인 송기태 교수의 '두레와 풍장'에 대한 강연과 이명훈 고창농악보존회장의 고창지역에서 행해졌던 풍장굿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며 고창농악 이수자들이 구성된 전통연희예술단 '고풍'의 풍장굿을 소재로 한 공연 또한 준비 되어 있겨져 가는 우리의 문화 유산을 기억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날 고창군 성송면 향산마을 풍장소리의 원형을 지켜오고 계시는 선소리꾼 홍순삼(86)옹과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고창의 풍장소리를 들어보고, 배워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홍순삼 어르신은 1991년 MBC 한국민요대전-전북도편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고창 논매기 소리'를 녹음했다.  
이명훈 고창농악보존회장은 이번 인문학콘서트-풍장굿을 통하여 마을 노동공동체인 두레가 고된 농사일을 놀이로 승화시켜 잠시나마 땀을 식혔던 옛 선조들의 지혜를 엿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전해질지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인문학 콘서트는 고창의 대표문물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며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고창농악의 다양한 연행형태를 소재로 진행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대한민국 최고 건축가와 전주시의 만남

'제2차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 개최

전주시가 국내 최고 건축가와 함께 사람중심의 도시·건축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21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시청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사람중심의 가치 실현을 위한 도시·건축 분야의 다양한 선진사례를 배우고 전주가 나아가야 할 미래상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가이자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승효상 이로재 대표가 강사로 초청돼 '이 시대 우리의 도시와 건축'을 주제로 다양한 도시의 모습과 건축사례들을 소개하는 강의를 진행했다.  
승효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시대 도시와 건축은 우리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로서 존재해야한다"라며 "획일적이고 평면적인 사고로 만드는 도시가 아닌 그 공간 안에서 구성원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

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행복한 도시 개발과 건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도시민의 삶을 기억하며 화합으로 이끄는 공공성을 지닌 좁은 골목길, 작고 넓은 건물, 자연이 만든 숲터,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공영역에 더욱더 주목하여 공유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구축된 도시가 시민을 연대하게 하며 행복으로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사람중심의 도시 만들기엔 바치를 가하고 있는 전주시의 도시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이번 강연이 앞으로의 전주시 도시개발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20일 순창노인전문요양원에서 '무지개오케스트라' 단의 찾아가는 연주회가 진행됐다.

#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 따뜻한 나눔의 선율로

창단 1년 맞아 순창노인전문요양원 찾아 연주회

다문화와 비 다문화 청소년들의 아름다운 하모니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가 순창노인전문요양원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보듬었다.  
군은 지난 20일 순창노인전문요양원에서 '무지개오케스트라' 단의 찾아가는 연주회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지난해 창단한 무지개 오케스트라단이 창단 1주년을 맞이해 시작한 첫 번째 연주회로 지역 요양시설을 찾아 의미를 더했다.  
이날 연주회에는 10명의 무지개오케스트라단원들이 참석했으며 아리랑, 아름다운 나라, 오나라, 흥부와 놀부, 산도깨비, 신모듬 등을 연주해 어르신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 올랐다.  
이번 연주회에 참여한 학생은 "아직 서

틀지만 우리가 열심히 연습한 음악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숙주 군수도 공연현장을 찾아 "일년 만에 이렇게 성장한 무지개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다"면서 "앞으로 무지개 오케스트라단이 정류축제 등 지역 행사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지개오케스트라는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전통예술 교육 및 국악연주 기회를 제공해 문화동질성을 추구하고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공예술프로젝트로 전북도립국악원과 순창군, 순창교육지원청이 지난해 창단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 뮤지컬 '아홉 번 사는 고양이'

지역문화콘텐츠(설화)를 활용한 뮤지컬의 우수사례로서 호평을 받고 있는 창작 뮤지컬 '아홉 번 사는 고양이' 공연이 오는 25일 오후 2시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고 아이들이 큰 상상력을 얻을 수 있는 재미있는 무대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완주군 봉동읍의 구바우 설화를 기반으로 창작 되었으며 구바우 설화는 아홉 개의 바위가 있는 곳에서 신비한 약초가 발견됐고, 그 약초가 많은 사람을 구했는데 이것이 생강이었다는 전설이다.  
이 설화를 기반으로 제작된 창작 어린이 뮤지컬 '아홉 번 사는 고양이'는 목숨이 아홉 개 있는 특별한 고양이 '구냥냥'과 목숨이 한 번 뿐인 '유일냥'을 등장시켜 시간의 소중함과 친구의 우정을 깨닫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독창적인 무대 연출로 창의적인 무대를 만들어 낼 전망이다. /김제=곽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